

† 마데테스는 제자라는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 은석교회는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있는  
돌보름 들여다보며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모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이 옳은 길이라는  
사실 하나만을 알고 그  
길에 매료된 자로 모이는  
교회공동체입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면서도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고자 나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 고마운 말

신 윤 식

복 받으세요.  
성공하실 겁니다.  
욕망의 돌쩌귀 되어  
기분 좋게 하는 말과 말들

좋아하는 말만 듣고 살면  
듣는 귀야 좋겠지만  
나를 눈뜨게 하고 깨우는 것은  
거슬리고 듣기 싫은 말로 다가오는 것을

어느 누구도 거울 없이는  
얼굴의 티를 볼 수 없듯이  
찢림이 되어 아프게 하는 말이라도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것을

내가 나를 알 수 없고  
내가 나를 볼 수 없으나  
하늘의 말이 눈이 되어  
나를 알고 보게 하니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말고  
거슬린다 하여 귀 막지 말고  
쓰든 달든 생명이 되는 그 말  
믿어봄직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mailto: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4.3

발행호수 제19권 14호

예 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린 본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가 기록한 본문의 내용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일을 하시고 날이 저물어서 성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 길을 지나실 때 무화가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질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저주 받은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다음 날 화요일에 있었던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나무를 저주하시자 곧 바로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기록된 순서를 본다면 마태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 앞에 있었던 것처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혀 다른 차이들로 인해서 성경의 오류를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 성경의 오류는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의 사실성보다는 예수님이 일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순서를 무시하고 배열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 그대로 전하고자 하기에 상대적으로 마태복음보다는 자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일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모호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이 시장하신 상태

주일오전설교  
마 21:18-22

##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였습니다. 길 가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시고 가셨지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 저주하시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당시는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억지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무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본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겨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의 의도는 나무를 곧 말라버리게 하신 예수님의 일에 대한 궁금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나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나무가 부실하여 쓸모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말라버리게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는 시기에 그같이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에도 쉽게 납득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질문한 이유라면 예수님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이 어떤 상태이며 왜 말라죽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매우 답답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난데없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만 보자면 마치 ‘의심하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로 나무를 말라버리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 버리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니까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를 하라’ 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로 나무를 마르게 하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기에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앞만 있을 뿐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셨자 하신 것이지 배가 고프데 먹을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생명이 없어서 말라 죽은 것과 같은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앞만 무성한 나무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제사라는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여들었을 뿐 피로 인한 죄용서나 생명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세우셨는지 보다 성전에 나가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죽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무가 말라죽은 일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말라죽은 일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도 심판과 연관된 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능력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말을 능력을 행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초월적 능력을 의미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은 ‘말 한 대로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했다가 그 말에 산이 순종하여 바다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하셨을 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는 말씀에서 의미하는 ‘이런 일’은 예수님처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는 능력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일을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에 참여시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도 심판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 버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나무를 마르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신자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 18: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이 권세로 인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 또한 권세 있는 말로 그대로 시행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권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강한 권세자로 등장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것처럼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진 권세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라는 것을 나무를 마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내시는 것이고, 제자들 역시 그 권세에 속한 자로 부름 받았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권세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세상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힘없는 자의 말이기 때문에 무시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예수님의 권세에 속한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는 말은 권세 있는 자의 말이며 따라서 그 말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하늘의 권세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한 일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1:12에 보면 빛으로 오신 그 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가 주어진 것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권세로 실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권세라면 권세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권세답고 권세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신자 자신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권세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상 세상에 대해 당당함을 잃은 채 세상과 동일하게 힘으로 여기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힘다운 힘을 가진 자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그 복음이 기증 되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자가 전하는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위해 부르신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누구든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처럼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신자의 말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자의 말에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 없이 믿는 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에 속한 자입니다.

신자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은 힘없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에 속한 자의 권세 있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그 말을 거부하면 심판해 버리는 권세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복음을 증거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복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곧 권세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 말을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권세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하늘의 권세에 속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죽음의 권세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말합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신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성령세례는 곧 불세례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은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불세례를 받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

험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신앙 생활 또한 뜨겁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든 불세례든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경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인데 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의 이 말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서로 대비하면서 이것을 능력과 연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 자신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능력이 없어서 단지 물로써 세례를 베풀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장차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실 성령과 불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먼저 물세례의 의미부터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세례는 사람을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였다가 다시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지금의 물세례는 특정 교단을 제외하고는 목사가 손에 물을 짚어 머리에 얹는 약식으로 행해지지만 중요한 것은 물세례의 의미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세례는 몸을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것으로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으로써 죽음에서 건진 받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세상 모두가 물에 잠겼을 때, 즉 세상이 죽음이라는 심판 안에 있을 때 노아의 가족은 물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주라는 은혜의 결과였

주일오후설교

눅 3:15-17

성령 세례

(성령11강 3.20일 설교)

습니다. 방주가 그들을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받쳐주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심판이 마땅한 죄인을 주께서 건져 내시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물세례의 의미와 일치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세례를 수백 번 반복해서 받는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상람이 죄를 깨닫고 자신을 죽음에 합당한 여기면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신의 물세례를 능력이 없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기 죄를 깨달으며 자신을 심판에 합당한 자로 보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세례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로 산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온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령세례를 불과 함께 언급하는 것은 불은 곧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심판에 해당하는 죽은 자로 보게 되는 것이 곧 불세례를 받은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세례는 개인적 체험으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인치시고 부르심으로써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뜻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나라에서 나 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연합된 관계로 존재하고 있고 그 관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됨이기 때문에 개인적 신앙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야 잘하든 못하든 나만 잘하면 천국 간다는 사고방식은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지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연합된 관계로 모이는 교회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연합된 관계로 존재하는 교회에 대해 소홀히 합니다. 신앙을 개인적인 삶으로만 여기면서 자신의 신앙으로 복을 받고 천

국 가는 것에만 염두를 두기 때문에 타인이 신앙의 경쟁자로 비교대상자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신자가 존재하고, 그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죄인 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주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의 존재와 시작을 뜻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내세울 수도 타인의 신앙을 판단할 수도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타인의 신앙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은 가짜일거야' 라는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앞서면 안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도 타인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분별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복음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있지만 그 분별 또한 '너는 틀렸다' 는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기 위한 권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세례 받은 신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 속에 살아가는 자신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구든 자신을 옳다고 생각한다면 죄에 대한 고백은 형식일 뿐입니다. 자신을 옳다고 보면서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보면서 고백하는 성령 세례 받은 신자에게서는 타인을 향한 판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이 믿음의 길을 간다면 그 또한 성령의 역사이고 주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서로의 신앙에 대해 판단을 한다면 먼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이루신 연합된 관계를 허무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타인을 향한 판단이 단지 비판과 욕이라는 도덕적인 문제라면 '잘못했다' 는 반성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으로 이루신 관계를 허무는 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심판이 마땅한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죽음을 이긴 산자로 주께 나아가게 됨을 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성령 받은 신자로써 그 같은

나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주께 나오는지를 살피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을 건지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피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 참으로 복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성령세례 받은 것이고 불세례 받은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전혀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신자의 뜨거움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뜨거움이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만은 놓을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간섭하시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게 되고 신자가 함께 모였을 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말없이 행하게 되는 그것이 신자의 뜨거움입니다. 이 뜨거움이 있기에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세례 받은 신자가 함께 한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주여 주여' 라고 불러대는 신앙이 아니고 화려한 예배당이나 의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에 서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면서 말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령세례 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 가라 선지자가 본 다섯 번째 환상은 이렇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 곁 좌우편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환상에 대해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천사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것이 천사가 말한 환상의 의미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면 그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생명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일까요?

본문에 보면 스룹바벨이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룹바벨은 고레스 총독에 의해서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1차로 유다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 유다를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일이 순탄하지를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데 누가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반가워하겠습니까? 이러한 유다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순금 등대는 성소에 있는 물품입니다. 이것을 보면 순금 등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은 성전과 연관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전 건축은 인간이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뭔가 하는 것은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큰 산은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을 뜻합니다.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이 비록 큰 산처럼 힘 있는 세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평지로 변하고 성전은 건축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우리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결국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은총이 머릿돌이 되어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결국 유다가 짓고 있는 성전은 미래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도 안되고 능력으로도 안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이 환상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스가라의 환상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

수요일설교

숙 4:1-14

**환상**  
**(순금 등잔대)**  
(5강 3.16일 설교)

니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외적 크기나 조건이 사람의 능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크게 건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도 물론 잘못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내어 놓으신 머릿돌을 보면서 오직 은총을 외칠 뿐입니다.

행 4:11,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성전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머릿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외칠 것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의 은총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할 뿐이고, 신자라는 존재 역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신자라는 자리에서, 교회라는 위치에서 나의 나뭇잎을 돌아본다면 자연히 머릿돌 되신 분의 은총을 외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의 외적 조건이라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또한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고 증거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초라함보다는 화려함이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깝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 2:7절에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름으로써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나라의 보배 되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이고 영광의 충만이라면 교회의 영광은 그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니라 오직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외적 조건은 세상이 볼 때는 작고 초라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교회는 부요하고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는 동일한 영광으로 존재합니다. 교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비록 각기 다른 크기와 규모로 존재한다고 해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교회는 동일한 영광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교회만 들기에 치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받는 교회 뒤편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연합하여 함께 하는 세계에서는 부하고 가난함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하는 것이 어렵지만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이 됨을 아는 교회라면 부한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권력도 영광이 아님을 압니다. 때문에 외적인 것들이 조건이 된 차별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 받은 신자로 여기시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께 영광이 되심을 믿으신다면 세상의 기준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선지자가 다시 천사에게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는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고 답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을 의미하고, 이 이스라엘에서 기름부음 받은 직분이 왕과 제사장임을 생각한다면 두 감람나무는 당시 제사장이고 유다 총독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등잔대 좌우에 서 있는 것은 성전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봉사와 섬김으로 인해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집니다.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사람을 조건 삼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외칠 뿐이고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50장  
교 독 : 70(사42)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442장  
성 경 : 마 21:18-22  
말 씬 : 말라버린 무화과나무(132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62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3 장  
축 도 : 설 교 자

##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24장  
기 도 : 이옥주 집사  
찬 송 : 442장  
성 경 : 행 8:9-24  
말 씬 : 성령 경험(성령 13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188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스가랴 강해(8강)

## ■ 교회소식 ■

1. 예배 후 제직회 모입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이성희 장로    오후 장영대 집사

## 자연과 인간③

사실 지진이든 홍수든 자연으로 인한 재해는 특이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의 존재와 함께 계속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재해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냥 무심코 바라본다. 혹 큰 피해를 입었다면 재해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금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자연의 움직임에 담긴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를 못한다. 이것이 재해를 재해로만 바라보는 인간의 둔한 안목이다.

자연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존에 위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다. 창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다. 그 징벌의 내용 중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 3:17-19)

하나님이 징벌을 보면 인간은 저주의 공간으로 던져졌음을 알 수 있다. 땅은 인간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저주 받은 땅은 인간이 먹을 것을 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다. 징벌의 내용대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수고롭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이다.

저주 받은 땅은 인간에게 괴로움을 준다.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진 세상에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움직임에 담겨 있는 그 내막을 보는 눈이 있다면 지진이든 홍수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재해를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징벌에 붙들려 있음을 자각을 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것이고, 현실을 제대로 보는 그가 세상의 저주와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비로소 생명을 고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 3:15)는 말씀을 배경으로 여자에게서 생명을 보게 되고 그를 하와(모든 산 자의 어머니)로 부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저주 아래 살게 하셨지만 생명에 대한 약속도 함께 주셨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약속을 고대하고 살아가지 않는다. 자신이 밭 딛고 살아가는 땅을 저주 받은 땅으로 바라볼 수 있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고생스럽게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곧 자신의 현실임을 깨닫는 그가 생명을 고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이며 이러한 신자가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지진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소리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로 가득한 어둠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소리다. 지진을 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에게 그리스도는 자신을 살리는 빛이고 생명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주와 죽음의 현실을 맞보게 하시면서 생명이라는 약속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신다.